

개별 학생을 위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eacher Librarians'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for Individual Students

이 연 옥 (Yeon-Ok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결과 | |

요약: 본 연구는 개별 독자에 대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과정 및 주요 특징, 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 독서자료 추천활동에서 대두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과정은 질문과 면담, 책 추천, 후속조치라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독서자료 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는 학생의 관심사, 독서이력, 책의 재미, 읽기수준, 도서수준, 교사, 수업 및 교과과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이들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단계 및 주요 요소는 향후 사서교사의 추천활동 수행에 있어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다각화와 개별 독자를 위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도서추천, 추천도서목록, 독자상담 인터뷰, 독자안내, 독자가발, 독서교육, 사서교사, 초등학교도서관, 어린이독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teacher librarians'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for individual reader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teacher librarians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the process of the teacher librarians' book recommendati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ook recommendation, and the factors considering in the book recommendation, as well as information on major issues that arise in the book recommendation activity were derived and presented. Specific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teacher librarians's book recommendation process was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stages: questioning and interviewing, book recommendation, and follow-up. An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factors considered when recommending books were students' interest, reading history, book fun, reading level, book level, teacher, class, and curriculum.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ces occurred i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eacher librarians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se results can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of the teacher librarians who perform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KEYWORDS: Book Recommendation, Book Lists, Readers' Advisory Interview, Reader Guidance, Reader Development, Reading Education, Teacher Librarians, Elementary School Libraries, Children's Reading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976).

** 부산대학교 BK21 생활밀착형정보서비스 전문인력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

(idisfeel@hanmail.net / ISNI 0000 0004 6487 2027)

• 논문접수: 2021년 11월 22일 • 최초심사: 2021년 12월 1일 • 게재확정: 2021년 12월 1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127-152,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4.202112.1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생의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과 독서교육은 정보활용교육과 함께 학교도서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기능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더 많은 독서를 독려하고, 독서를 즐기는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책무인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인 『21세기 학습자 기준(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에도 명시되어 있다. 기준에 따르면, 독서를 개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간주하며, 이를 위해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독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독서에 대한 동기를 진작하며, 다양한 자료를 선별하여 고품질의 독서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ASL, 2007).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독서교육이 학교도서관의 핵심적인 교육기능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사서교사들은 학내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자료에 대한 안내와 추천을 하며, 독서토론대회나 저자와의 대화와 같은 독서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흥미와 독서동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비롯한 독서교육 활동의 전반적인 양태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 학년 및 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하고 보편적인 독서교육 목표에 맞추어져 있어서 개별 학생의 독서요구와 관심, 상황에 기초한 지원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권은경, 2012). 바로 동일한 학교급, 학년의 경우라도 학생의 성별, 읽기능력, 독서에 대한 태도, 독서경험과 독서량, 선호하는 독서자료의 유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에서 개별 학생의 상황과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서프로그램이나 독서행사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독서자료목록도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양태를 띠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추천도서목록은 일반적으로 학년별, 주제별, 교과별 목록이라는 형태로 개발되거나 활용되고 있어 개별 학생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독서자료를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별 학생에게 적중할 독서자료는 학생 개개인의 읽기능력, 독서경험, 독서량, 독서태도, 관심과 취향, 요구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기에 학년 단위나 주제 단위로 범주화하여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학생과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 독서이력을 살피고 학생의 독서취향과 관심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책을 추천하며, 추천한 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등 보다 개별화되고 세심하게 접근하는 독서지원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일상적 업무 차원에서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 추천을

이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서교사의 경험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료 추천활동의 세부 과정이나 방법, 수행정도나 성과, 어려움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과 관련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독서자료와 독자를 연결하는 일은 사서 및 사서교사의 핵심적인 서비스이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이 사서교사의 개별적인 경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독자에 대한 학교도서관의 대응방안으로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위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점검하고 추천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징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는 개별 학생들을 위한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독서자료 추천은 어떤 과정을 밟으며, 학생과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활동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쟁점을 고찰해보았다.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위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주요 양상과 특징을 사서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자료 추천활동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선행연구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과 관련한 연구로 거론할 수 있는 국내 논문으로는 사서가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활용하는 추천도서목록을 평가한 연구(이연옥, 2006)와 독서자료의 온라인 추천 방안을 제시한 연구(박양하, 2016)가 있다. 이연옥은 사서가 아동 및 청소년용 독서자료의 선정과 추천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천도서목록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서의 추천도서목록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심분야와 요구, 독자의 책에 대한 반응, 독서이력, 독서태도, 읽기수준, 성별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권장도서목록의 평가에 주안점을 둔 연구이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개별 독자에 최적화된 추천도서의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박양하는 개별 독자를 위한 독서자료 추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개별 독자 정보에 의거해 독서자료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선호도를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탑재된 권장도서목록과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추천방안을 도출하였는데, 대출이력과 학년이라는 개별 이용자 정보를 기초로 다대출 추천 및 동료활동 기반 추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들은 관심정보 키워드 추천과 학년 및 교과연계 다대출 추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정보를 학년, 대출이력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개별 학생에 적합한

자료 추천을 위해서는 학생의 독서와 관련한 세부상황을 알 수 있는 다각적인 정보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관심과 상황을 비롯한 독자의 독서관련 세부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의 검토 결과, 사서교사가 개별 독자에 적합한 독서자료를 추천하기 위해 개별 독자로부터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학생인 독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등 개별 독자를 위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 과정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 독자에 대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조명한 연구는 국외연구에서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국외에서는 주로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의 일환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인터뷰를 통해 독서 흥미와 취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독서자료를 추천하거나 개별화된 목록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Saricks, 2005). 이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공공도서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주 일부 학교도서관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독서자료 추천활동에서 사서의 역할 및 조치 등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Chelton, 2003; Doll, 2001; May et al., 2000; Shearer & Bracy, 1994), 독자상담인터뷰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조명한 연구(Booth, 2007; Ross, 1991), 독서자료 추천의 영향요인을 고찰한 연구(Bracy, 1996; Heritage, 2004) 등이 있다.

이 중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수행한 연구는 Doll의 연구와 Heritage의 연구를 들 수 있다. Doll(2001)은 학교도서관이라는 환경에서 독서자료 추천과 관련한 사서교사의 역할을 밝히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개별독자에 대한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독서이력인 독서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독서자료를 안내하며, 추천한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개별 학생 대상의 독서지도에 성공하는 열쇠는 학생들의 이전 독서경험에 대해 민감하게 질문하여 신중하게 답변을 듣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추천을 위한 사서교사의 역할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자료 추천의 세부과정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Heritage(2004)는 사서교사의 개별독자를 위한 독서자료 선택과정에서 고려되는 세부요소를 독자상담인터뷰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밝히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여가용 독서자료를 찾는 초등학생 2학년 대상의 독자상담인터뷰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서교사의 책 추천에는 학생의 관심, 읽기능력, 책의 레벨, 학생의 발달 단계적 특성, 여가독서에 대한 교사의 철학, 학부모의 의견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외 연구 또한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점검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Heritage(2004)의 연구가 가장 관련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초등 2학년 대상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내의 사서

교사가 처한 상황이나 학교 독서문화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는 점에서 국내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학교도서관의 개별 독자를 위한 자료 추천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학교도서관 현장에 축적된 정보가 미흡하다는 실정을 고려하면, 국내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독서문화 및 학교도서관 환경을 토대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 경험을 고찰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별 독자에 대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고찰하는 것으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독서자료 추천의 주요 패턴,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에 기반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택한 이유는 첫째, 개별 독자에 대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연구주제에 대한 정보의 축적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질적 연구가 관련 연구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질적 방법을 선택하였다(노성호, 구정화, 김상원, 2020). 둘째, 질적 연구방법은 역동적이며 복잡한 요인이 얽혀있는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용이하며 아울러 연구참여자의 세계와 시각, 입장과 고민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개별 독자에 대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참여자인 사서교사가 자료 추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갈등, 추천활동과 관련한 주요한 이슈를 언급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시도하는 본 연구는 사서교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개별 학생에 대한 자료추천활동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용이하며 이를 통해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을 비롯한 독서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질적 연구의 표본선정 방법 중 의도적 표본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하였다. 의도적 표본선정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심층연구를 위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연구 사례에 대한 통찰과 깊이 있는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거하고자 하였다(Patton, 2015). 아울러 의도적 표본선정 중에서도 이 연구는 동질적인 표본선정을 채택하였다. 이는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을 포함함으로써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면담이 가능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패턴을 도출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Patton, 2015, 42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질적인 표본으로 구성하도록 초등학교 사서교사일 것, 사서교사로서의 경험이 5년 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서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20년 기준 X시의 초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 수는

25명이며, 이들 중 휴직한 3명을 제외하고 위의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한 사서교사 14명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X시에서 초등사서교사 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서교사에게 협조를 구해 본 연구에 대한 취지와 연구내용을 알려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그 결과 8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들을 A, B, C, D, E, F, G, H 교사로 칭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8명의 사서교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면담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줌(ZOOM)을 이용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수행되었다. 사서교사에게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자료 추천은 어떻게 하는지, 추천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추천하는지,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 추천과 관련한 경험 전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담긴 면담가이드를 설계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별 면담을 수행하였다. 주요 질문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개별 학생 대상의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상호작용
- 독서자료 추천 시 고려 사항 및 고려 이유
-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
- 추천 이후 학생들의 반응을 비롯한 추가적인 후속조치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화되었으며 녹화된 내용은 인터뷰 후 전사되었다. 전사된 파일은 총 91페이지의 길이였으며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질적 연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QSR NViv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독서자료 추천활동에서 취한 과정 및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 및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 방법을 활용하였다(Patton, 2015). 연구참여자 2인의 협조를 얻어 연구결과를 검토하게 하고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의 관점과 면담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논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II. 연구결과

1. 개별 학생 대상의 독서자료 추천과정

우선, 독서자료 추천은 학생들의 책에 대한 질문과 책 추천 요청에 사서교사가 부응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었으며, 아울러 서가에서 책을 선택하지 못하고 헤매는 학생들이 관찰될 때 사서교사

가 학생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수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면담을 통해 학생의 책에 대한 관심분야와 선호도를 알아내는 질문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선호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한다.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저는 과학책을 좋아해요, 역사책을 좋아해요'와 같이 대답한다(C 교사).

학생들에게 추천할 때는 그 친구가 이전에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그 아이의 독서성향과 독서수준을 파악해서 그 비슷한 취향과 수준에 맞추어 추천하려고 한다(A 교사).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책'과 관련한 관심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있다. 책으로 제한하여 물어볼 경우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독서 이외의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알기 위해 질문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다.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이를 우선 고려하여 책을 추천해준다(G 교사).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사서교사들은 책 추천 시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이었나?, 이전에 가장 재밌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와 같은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고, 이러한 질문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관심분야에 대한 질문 즉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평소 무엇을 좋아하는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심분야에 대한 질문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사서교사 A와 D의 경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외로 친구들이 자기가 재밌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다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A 교사).

책 추천을 위해 질문과 대화 등의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저학년의 경우 이것이 힘들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못하기에 아이들과의 소통이 힘들다. 여러 번 물어봐야 한다(D 교사).

학생에게 맞는 책 추천을 위해 학생과의 대화와 질문이 오고가며, 풍부한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을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서툴고, 자신의 관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라 학생과 사서교사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서교사들은 개별 학생에 대한 책 추천을 위해서는 그 사전 단계로 평상시에 학생들과의 관계를 축적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6명의 사서교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A, B, C, D, H, G 교사).

초등학생은 자신이 관심가지는 것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나 일단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저하고 라포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나면 본인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줄줄 하는 경우가 많다. 고민거리나 평소의 관심사를 이야기한다. 아이와의 관계를 축적시키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개별적인 관심과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관심이나 상황과 유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추천하기가 용이하다(C 교사).

사서교사 C는 책 추천과정에서 사서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즉각적인 질의응답만으로는 개별 학생의 관심과 요구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에 학생과의 관계를 축적시키면서 학생을 알아가는 선행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사서교사 A와 H도 학생들과 관계의 축적과 신뢰의 구축,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개별 학생을 위한 책 추천하는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그들의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들이 도서관에 자주 와서 얼굴을 익히고 말을 주고받는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는 목적에 성급히 다가가기보다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책읽기도 서두르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하다(A 교사).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초등 독서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말 한마디 건네주면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관계 속에서 이 책을 네가 읽으면 재밌겠다, 너한테 도움이 되겠다며 건네질 수 있다. 이러한 축적된 관계없이 처음부터 '이 책 읽어봐'라고 하면 잘 안되는 것 같다. 일단 내가 추천한 책을 아이들이 잘 읽게 하려면 사서교사인 나를 좋아하고 신뢰해야 한다(H 교사).

그리고 사서교사들은 학생과의 관계를 축적시키면서 학생을 알아가는 선행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사서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사서교사 A, B, H).

개별 아이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아이들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다. 이 차원에서 수업을 많이 달라고 한다. 수업을 하지 않으면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만 경험하기에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책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오는 것을 도피처로 이용하든가 두 부류가 많이 온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 엄마가 가라고 하니 오는 친구들이 좀 있다. 이외 친구들은 잘 오지 않는다. 이 모든 친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수업이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의 활동과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도서관에 오지 않는 아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고 수업에서 아이의 취향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쌓이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평소 지나가다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한다. '도서관에 이런 책 새로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보러 올래?' 하며 도서관으로 불러들인다. 수업이 모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와의 관계가 맺어지며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는 매개의 장이 된다(B 교사).

수업을 하게 되면 한 학년의 아이들을 1년 동안 보게 되기에 아이들의 특성이나 좋아하는 바를 알게 된다. 책 추천을 위해서는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에서 내가 아이들과 친해지면 나 때문이라도 도서관에 온다.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선생님은 무슨 책을 좋아해요?', '나 이런 책 읽었는데, 이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개별 아이에게 맞는 책을 추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H 교사).

이처럼 B, H는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수업'이 도서관에 오는 학생과 더불어 도서관에 오지 않거나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인 학생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며 다양한 개별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이해가 이뤄지는 등 개별 학생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에 오지 않거나 비독자인 학생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관계가 이뤄지며, 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장을 수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사서교사들은 책 추천에 앞서 학생들과의 관계 누적과 신뢰 구축을 위해 평소에 학생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며', '관심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도록' 하며, '친절하고', '언제나 웃으면서 이야기해주며', '개방적이고 환영하면서도',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고 싶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A, B, D, H, G 교사). 이러한 사서교사의 노력은 독서자료 추천 이전에 학생들의 독서와 독서자료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독서자료 추천이 사서교사의 '수업'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파악, 학생과의 관계 형성,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인, 학생과의 관계와 신뢰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사서교사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업시수의 유무와 정도는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학교에서 사서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 수업 시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들은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국어수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수업시수는 학교의 규모와 상황, 교장을 비롯한 교육과정 편성 책임 교사 등 관리자들의 인식, 사서교사의 적극적인 요청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개별 학생을 위한 독서자료 추천은 학생 수를 비롯하여 학교의 규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의 사서교사 A와 B의 증언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많다보니 대출반납업무로 개별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힘들다. 이것이 우리 사서교사에겐 치명적인 문제다. 사서교사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학생 수가 많다보면 대출반납 시 아이들이 줄을 이주 길게 서 있는데 아이들이 ‘무슨 책이 재밌어요?’라고 물으면 대답할 시간적인 틈이 없다. 쉬는 시간 10분 안에 대출반납을 다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이 책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하며 책을 추천하고, 책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A 교사).

개별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아이들 각자가 책을 읽게 하려고 우리 사서교사가 수업도 하고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고 하는 것이 아닐까? 개별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아이들의 독서가 흡수되도록 해야 우리 존재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이 1인 운영체제라서 한계가 있다. 인력이 한명이라도 더 있으면 개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 같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면 대출반납과 수업으로 바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힘들기에 개별 지원과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학생 수가 적으면 아이들 얼굴을 보며 이름도 불러보고 대출반납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또 아이들에 대한 관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아이들의 개별적 상황이나 요구에 맞는 책을 권하는 것이 용이하다(B 교사).

이처럼 사서교사들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의 특성상 규모가 큰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독서자료 안내를 비롯한 개별 학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별 학생에 대한 관찰 및 상호작용을 통한 책 안내와 지원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고민하는 사서교사들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 B, C 교사).

2.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

앞 절에서,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사서교사는 일차적으로 학생의 관심사항을 파악하는 질문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응에서 사서교사들은 독서자료의 추천에서 학생의 관심사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책을 읽으며 책읽기의 재미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분야의 책읽기로 확장하고 자발적 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서교사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관심분야에 대한 질문 이후 사서교사가 개별 학생을 위한 독서자료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고 각 요소에 대해 사서교사는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가. 독서이력

사서교사의 학생의 관심사에 대한 질의 응답과정은 학생의 독서이력에 대한 검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의 독서이력은 DLS 대출기록정보에서 파악되며, 사서교사들은 대출기록정보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기호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추천하고 있었다. 이를 테면, E교사는 학생의 대출기록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읽었던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학생의 평가와 의견을 물어본 뒤 반응이 좋을 경우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추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B교사의 경우 대출정보를 학생의 기호에 맞는 책 추천을 위해서도 활용하지만 학생의 기호를 넘어서는 책 추천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B교사의 경험을 다음의 인용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책 추천을 위해 대출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DLS에서 대출경향을 파악한다. 반복적으로 빌려가서 이를 조금 피하게 할 때도 대출정보가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빌려가서 이 주제에 좀 더 집중해서 읽게 하고자 할 때도 대출정보가 필요하다(B 교사).

이처럼 독서이력을 활용해서 사서교사 B는 학생의 관심분야나 기호에 기반한 책 추천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관심분야를 이동시키거나 확장시켜내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서교사 E도 인기도서 편향적인 대출 이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책 추천을 위해 학생들의 독서이력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마다 독서취향이 생기는데 이를 존중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인기도서에 편향적인 아이들의 경우 다른 책을 함께 보도록 유도한다. 아이들한테 늘 똑같은 반찬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책 읽기를 유도하는 편이다. 그래서 인기도서 이외의 다른 책을 추천해서 읽으면 조금의 보상을 한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E 교사).

한편, 사서교사 H는 대출정보를 통해서 학생들의 독서취향을 엿볼 수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학생들의 독서취향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스로 대출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의 의견이나 취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한 권장도서목록을 토대로 아이에게 책을 빌려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본인의 의사보다는 학부모의 요구로 대출해가기 때문에 대출목록이 100퍼센트 아이의 독서 취향이라 말하기 어렵다(H 교사).

H의 경험에서 초등학생들의 독서자료 대출을 비롯한 독서과정에는 부모들의 개입이 존재하기에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독서이력과 독서취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책의 재미

사서교사들이 책을 추천하는 데는 책의 내용적인 면에서 매력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책의 재미'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의 재미'에 대한 검증은 사서교사 본인이 읽어 확인하는 것을 선호하며, 사서교사가 재미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재미가 있을만한 책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C, E, F, G 교사) 이 중 사서교사 C는 학생의 독서취향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책 추천을 위한 조치로 '책의 재미'라는 요소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독서취향이 뚜렷한 아이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이의 독서취향을 고려하되 사서교사인 내가 재미있었던 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아이들이 다양하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양하게 추천하는 편이다. 독서취향이 없는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들, 막연히 재미있는 책을 요구하는 아이들에게도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재미있었던 책을 소개해준다(C 교사).

그리고 재미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적중할만한 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 개별 학생에게 책 추천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평가가 있다. 사서교사 A의 언급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어린이책의 주제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무거우며 교훈적인 주제에 얽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재미적인 요소가 강화되어 내용이 유쾌하고 발랄하여 아이들을 잡아끄는 매력적인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학급에서 벌어지는 일, 아이들, 첫사랑 등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라고 여길만한 것들이나 아이들의 평소 관심을 잘 반영하여 책에 잘 녹여내면서도 이것을 또 기막히게 재밌게 잘 써서 출판한다. 제가 쥐어주어 아이들이 펼치기만 해도 끝까지 읽어내는 책들이 많다. 동화작가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예전에는 책을 잘 읽는 아이들만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끝까지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들이 많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에게 추천이 용이하고 성공률이 매우 높다(A 교사).

이처럼 A는 최근의 아동문학 출판시장에서 아동의 관심과 이해, 욕구를 잘 반영하면서도 재미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구성이 탄탄하며, 아동들에게도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상황은 사서교사로 하여금 추천 과정에서 '책의 재미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사서교사의 추천이 학생에게 적중률과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서교사는 '책의 재미'를 학생들의 책에 대한 경험과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대출빈도가 높아 학생들에게 호응이 높은 책이나 대출반납과정에서 학생들의 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일종의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책리스트'를 관리하고 이들 리스트 중 실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G 교사).

그러나 사서교사들은 재미있는 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의 한 면이라 할 수 있는 '다대출도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학생들에게 호응이 높아 대출빈도가 높은 다대출도서를 고려하지만 교육적 가치가 미치지 못한 책은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대출도서 중 별로 영양가 없이 단지 흥미나 재미만 있는 책들은 추천에서 배제한다. 다대출도서 중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는 있지만 감동이나 도움을 주지 않은 책들이 많아서 이런 책은 고려하지 않는다(D 교사).

D처럼 많은 사서교사들이 '재미적인 요소'와 '교육적 가치'를 절충하여 책을 추천하고 있지만 사서교사 F는 이를 실제로 절충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책 중에서 재미가 있는 책을 찾아내어 제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한편, 학생들에게 추천할 '재미있으면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책의 발견을 위해' 사서교사들은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서교사가 평소 직접 책을 읽고 검토, 어린이책에 대한 공동 학습과 연구, 사서교사들 간의 추천 도서와 학생의 반응에 대한 정보공유, 서평 및 서지정보 활용, 어린이 책을 비롯한 아동문학에 대한 교육과 연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적중하면서도 사서교사 스스로 자신있는 책 추천 방법은 '사서교사 본인의 읽기'라고 말한다(A, B, C, F, G 교사). 사서교사가 책 추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 읽기수준

학생에게 추천하는 책이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읽기수준이 안되면 읽을 수가 없기에 사서교사들은 추천 시 학생의 읽기수준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우선 사서교

사들은 본인이 담당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읽기수준에 대한 파악이 일정 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A, B, C, D, E, H 교사). 그러나 사서교사가 참여하는 수업 시수와 담당 학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모든 학년의 읽기능력을 파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사서교사들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거나 담임과의 협조를 통해 개별 학생들의 읽기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 학년에 비해 읽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로부터 얻은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A, B, C, D, E, H 교사). 이외에도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독서이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읽기수준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대출반납 시 학년별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대출반납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책의 내용 및 난이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학생의 읽기수준을 확인하고 있었다(D, E 교사). 또 학생에게 책의 한 페이지를 읽어보게 하여 읽기능력을 파악한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F 교사).

평소 이러한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생에게 추천할 시에 모든 학생들의 읽기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 대안으로 사서교사 H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연령 및 학년 정보에 의거해서 추천하고 있었다. 사서교사 G의 경우도 학생이 특별히 관심분야가 없을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학년정보에 준하여 추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읽기수준은 같은 학년 내에서도 편차가 크기에 학년기반의 추천은 적중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사서교사 E).

한편, 사서교사 A, B, F, H는 학생들의 읽기수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읽기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근거한 책 추천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는 읽기수준을 탄력적으로 이해하여 책 추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사서교사 F의 경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의 읽기수준에 대해서 단정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읽기수준이 또래 학년에 비해서 낮다고 해서 그 학년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다. 아이들의 경우 읽기수준이 낮더라도 어떤 특정 책을 통해 그 아이의 읽기수준을 뛰어넘어 읽어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아이의 읽기수준에만 얽매어서 책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 물론 평균적인 읽기수준은 존재하지만 1학년이 해리 포터를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고, 6학년이 저학년용 그림책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학년별 추천도서목록을 작성할 때도 쉬운 수준에서부터 어려운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F 교사).

이처럼 사서교사 F는 학생들이 그들의 읽기수준을 넘어서는 책읽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서교사가 학생의 읽기수준에 한정하여 책 추천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서교사 B도 학생의 관심과 읽기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많은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어도 다 타고 올라간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이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그림책, 고양이의 생태에 대한 책, 고양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책도 본다. 동물도감도 보며, 고양이 관련 모든 책을 다 본다. 이 책들 중에는 아이들 읽기수준에 맞는 것도 있고, 그보다 낮은 것도 있고, 그보다 높은 성인용 책도 있다. 다양한 수준의 책을 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읽어내며 그러면서 읽기수준이나 이해력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는 아동용에 제한하지 않고 청소년용, 성인용도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사나 부모용 책들도 아이가 읽고 싶어 하며 관심가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접근과 대출을 하게 한다. 아이가 특정 작가의 책이 재미있다고 하면 이 작가의 성인용 책도 안내한다(B 교사).

사서교사 B가 언급하였듯이 학생의 높은 관심이 그의 읽기수준을 넘어서는 이해력을 이끌어내기에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책을 제시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사서교사 G는 학생에게 수준별로 다양한 책을 제시하여 학생이 최종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다.

도서관에 잘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독서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다양한 수준의 책을 경험해보게 하고자 세 단계 수준으로 책을 추천한다. 보통 학년 읽기수준에 해당되는 책,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책,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책으로 추천한다. 수준별로 다양한 책을 제시하여 아이들이 그 책을 훑어보고 직접 선택하는 방법을 취한다(G 교사).

한편, 사서교사 A와 B는 '학생의 관심사'와 더불어 '책의 재미적인 요소'도 학생의 읽기능력을 뛰어넘는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으며 '책의 재미'와 '학생의 읽기수준'을 연계하여 책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읽기능력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읽기능력이 좋은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읽기수준에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망라적으로 읽기에 책의 수준이나 아이의 읽기수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책읽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보통 재밌을 만한 책을 추천해주면 잘 읽어낸다. 재미있는 책이 아이들의 읽기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읽기수준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또 이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읽기수준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학년에 준해서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주면 대략 잘 통한다(A 교사).

사서교사 A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읽기수준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이해가 책 추천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서교사들은 책의 재미적인 요소가 학생의 읽기수준을 넘어서는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재미있어할만한 책 추천을 보다 강조하며 이에 주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도서의 수준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읽기수준에 상응하는 도서추천을 위해 도서의 수준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사서교사들이 도서의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은 일차적으로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안내 정보나 서평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의 수준에 대한 정보는 저학년용, 중학년용, 고학년용 정도의 대략적인 수준에 그치며 세부적이라고 하더라도 학년에 대한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출판사에서 학년별 단계로서 고, 중, 저학년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책의 수준을 판단하고 있다. 요즘은 출판사 자체에서 '몇 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판하기도 한다. 또 출간 시 출판사가 어떤 학년에게 적당하다거나 누구를 위해서 썼다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이를 보고 판단한다. 그런데 출판사 제공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저학년용이라고 하면서 저학년이 읽을 수 없는 책인 경우도 있어 신뢰하기가 어렵다(F 교사).

이처럼 사서교사들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학년별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도서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직접 읽어 확인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모든 사서교사들이 직접 읽어 도서수준을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도서의 수준뿐 아니라 내용 파악을 위해 수서부터 정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대한 직접 읽으면서 책에 대한 정보를 축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책을 읽어서 그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사서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판단계에서 도서에 읽기능력지수가 표시되어 출판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G, H 교사). 한편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 사서교사들 간의 연구모임을 통해 도서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초등사서교사들끼리 아동도서를 읽고 공부하는 연구모임이 있다. 여기서 이 책은 몇 학년에 읽히면 좋겠다. 글밥은 많지만 몇 학년이 읽어도 무방하다 등 책의 수준이나 책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들이 아이들에게 추천할 때 유용하다(C 교사).

한편, 사서교사 H는 학생에게 책을 추천할 때는 책의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 행태나 선호 등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책에 학년별 단계로 고, 중, 저로 구분지어 표시되어 있어도 아이들은 별로 안보고 신경도 잘 쓰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 구분을 보고 “이거 제가 읽어도 되는 책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구분은 학부모와 교사만 본다. 애들은 주로 제목과 표지를 보고, 두께를 본다. “선생님 이거 너무 두꺼워요, 이거 너무 얇은 것 아니에요 저한테?” 보통 이렇다. 그래서 책의 수준을 두께로 판단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책을 권하게 된다. 글자크기가 커도 두께가 있으면 이를 차후에 권한다(H 교사).

H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의 책의 수준에 대한 판단 경향이 책의 두께라는 점, 그리고 책의 내용적 수준이 해당 학생에게 적합하더라도 두께가 두꺼운 책을 추천할 경우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교사

사서교사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역할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담임교사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관심도에 따라 학생들의 독서량과 독서에 대한 관심정도, 도서관에 대한 방문빈도가 달라지기에 담임교사를 초등 독서교육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사서교사는 담임교사가 개별 학생의 요구, 관심, 상황, 읽기수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보고 그들을 학생의 독서자료 추천을 위한 상시적인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자신의 요구나 관심을 분명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들을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하는 전문가인 교사의 통찰이 도움이 되기에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사서교사는 자료추천과정에서 담임교사의 독서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독서자료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사서교사들마다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담임교사의 독서자료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파악하고 이를 존중하여 학급마다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서교사가 있다.

초등은 담임이 중요하기에 담임의 독서자료에 대한 입장을 존중해서 책을 추천하거나 대출하게 한다. 담임이 ‘이런 책은 안 돼!’ 하면 그 학생들에게는 그런 책은 안 빌려가게 한다. 담임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려하기에 담임에게 일일이 물어본다. 예를 들면 만화책, 어른용 책 등에서 사서교사인 나와 입장이 다를 수 있기에 교사의 입장을 파악한다. 담임의 학급운영원칙, 자료대출과 관련한 입장, 자료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를 존중해주고자 한다(H 교사).

또 특정 자료에 대해 제한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자료의 가치나 의미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등 자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서교사도 있다.

교사의 입장과 철학을 고려해야하는데 아동자료에 대해 사서교사인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만화자료에 비호용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이럴 경우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 독서흥미가 없는 아이는 만화로 된 책을 먼저 읽으면 흥미를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도 괜찮다고 교사들에게 설명한다. 교사의 의견을 주로 존중하는 편이지만 자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덧붙여서 설명해준다(B 교사).

특히 교사들이 만화책에 대한 경계, 고전에 대한 지나친 강조,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에 대한 강조, 재미를 추구하는 책에 대한 경계 등의 경향을 보일 때, 그리고 아동용 독서자료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등의 상황일 때는 교사와 사서교사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럴 경우 사서교사가 자료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과 교사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 B, C, D, E, F, G 교사).

바. 수업 및 교과과정

사서교사들은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적인 역할로 설정하며 교육과정에 맞는 책을 수서하고 교육과정에 맞는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들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교사들은 평소에 교과연계목록을 개발하여 교사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도 교과과정에 필요한 책을 찾아보게 하며, 교과 내용에 기반하여 책을 추천한다고 하였다(A, B, C, F, H 교사). 이 일환으로 사서교사 H는 특별히 사회, 역사, 과학과목의 학년별 내용과 연계하여 관련 학년에게 책을 추천한다고 하였다.

사회, 역사, 과학 책은 수업 연관 책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3학년 사회에서 우리 지역 동네에 대해 배운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한 책을 안내해준다. 또 5학년 사회에서 한반도 역사를 다루고, 6학년 사회에서 세계사를 다루기에 관련하여 책을 추천해준다(H 교사).

이처럼 대부분의 사서교사에게 있어서 교과나 수업이 학생들을 위한 책 추천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서교사는 독서자료의 추천에 있어서 교과나 수업에 대한 고려보다는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고 독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서교사들이 교과와 연계된 자료 개발과 제공에 초점을 두고 교과과정을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나는

교과와는 별개로 종합적인 독서교육에 초점을 두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과와 연계하여 추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초등은 독서가 즐거워서 독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서 시에는 교과연계자료를 고려하나 아이들을 위한 독서교육에서는 굳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오라 하면 제공해주는 정도이다(D 교사).

또 개별 학생들에게 독서자료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사서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독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서교사의 역할을 절충하려는 사서교사도 있다.

사서교사로서 제일 고민인 것이 교사와 학생의 독서에 대한 시선에 있어서 차이이다. 학생들은 재미있는 책을 원한다. 교사들은 학습의 측면을 강조한다. 사서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적인 부분을 지원하면서도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절충해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교과와의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중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F 교사).

3. 후속조치

독서자료 추천 이후는 추천한 책이 해당 학생에게 적절했는지, 재미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책의 반납과정에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비롯한 책의 내용에 대한 대화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반응이 좋은 책은 비슷한 관심과 성향을 가진 다른 학생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서교사가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후속조치를 시도하고자 하지만 사서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였다(A, E 교사).

한편, 일부 사서교사는 개별 학생에게 책을 추천하고 학생들로부터 받은 반응을 일지나 수첩에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C, D, H 교사).

저는 일지를 쓰고 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첩을 마련해서 여기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했는지, 이에 대해 내가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를 기록한다. 이를 축적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체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추천했던 것이 기억이 잘 안나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기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C 교사).

아울러, 사서교사의 책 추천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에 맞는 책을 직접 찾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과도 연계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고른 책에 대해 사서교사의 피드백과 칭찬을 받으면 더 잘 고르려고 하더라. “이번에 이런 책을 골랐어? 골고루 보네” 이렇게 칭찬하면 그 경험이 확장이 되는 것 같고 효과가 있더라(F 교사).

개별 아이들이 자신이 읽을 독서자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활동을 한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자료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다. 아이들은 만화책이나 문학책밖에 모른다. 다양한 주제의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서관이용교육을 수행하여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관심 가는 주제의 독서자료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A 교사).

또 개별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책이나 관심이 높은 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관련 책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내기 위해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사서교사들은 주제별 책 전시, 작가별 코너, 원화전시, 작가와의 만남 등의 독서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학생의 독서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여내고 접근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사서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독자에 대한 학교도서관의 대응방안으로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위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을 점검하고 추천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상과 특징을 사서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서자료 추천은 주로 개별 학생의 책에 대한 질문 및 요청이나 사서교사의 학생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되며, 이후 학생의 주요 관심사를 알아내기 위해 사서교사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면담이 수행되고 있었다. 면담 이후 관련 책을 추천하고, 추천이후 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피드백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위한 독서자료 추천과정은 질문과 요청을 비롯한 면담과정, 책 추천활동, 책에 대한 피드백 및 후속조치라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 같은 단계는 독자상담에서 독서자료 추천을 위한 핵심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질문과 면담, 책 추천, 후속조치라는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Saricks, 2005).

그리고 사서교사의 개별 학생을 위한 자료추천은 학교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서교사들은 학교 급이나 학생 수가 클수록 학생을 위한 개별적 독서자료 지원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하였다. 학교교육에서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및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미래 교육의 혁신으로 제안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서교사의 개별독자를 위한 독서자료 추천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현욱, 안세근, 2019). 따라서 한 학교에 1인 사서교사 의무 배치를 넘어서 학생규모에 따라 사서교사의 수를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서자료 추천의 세부 단계별로 사서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고찰한 결과, 먼저 면담에서는 사서교사와 학생 간에 사전에 구축된 관계 및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서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업'이 개별 학생에 대한 파악, 학생과의 관계 형성, 도서관으로 유인, 학생과의 관계와 신뢰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의미한 활동을 이끌어내어 책 추천활동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사서교사들은 도서관에 오지 않거나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하고 독자가 되게 하는 주요한 장이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서교사의 평가와 인식과는 달리 현재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시수의 유무와 정도는 학교마다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개별 학생에 대한 사서교사의 독서지원 활동의 이행과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을 교육과정에 구조적으로 편성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면담'에서는 학생의 관심사항을 파악하는 질문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사서교사는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이었나?, 이전에 가장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었나?"라는 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질문조치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평소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관심분야를 파악하는 확장된 질문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질문조치는 독자상담을 위한 인터뷰 관련 문헌에서도 주요하게 발견되는 권장 조치라 할 수 있다(Bracy, 1996; Heritage, 2004; Saricks, 2001).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한 파악을 필두로 해서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는 학생의 독서이력, 책의 재미, 학생의 읽기수준, 도서수준, 교사, 수업 및 교과과정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각각의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들 간에 경험과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책 추천 시 학생의 읽기수준을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교사들은 책 추천에서 학생의 읽기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생들의 읽기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요구되나 책 추천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사서교사는 학생의 관심과 책의 재미가 학생들의 읽기능력을 넘어선다고 인식하며 학생의 읽기수준에 제한하여 추천하기보다는 학생의 관심, 책의 재미 등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높은 관심이 읽기수준을 넘어서는 이해력을 이끌어낸다는 이와 같은 입장은 다양한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대목이다(Carter, 2000; Kragler

& Nolley, 1996; Vacca & Vacca, 2003). 또한 이는 학생의 읽기능력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다각적으로 연구해 온 Krashen(2002)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Krashen은 학생들의 읽기수준에 대해 교사가 보다 탄력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이 종종 주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으로 인해 자신의 읽기수준보다 높은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읽기수준보다 쉬운 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후속적인 독서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기에 학생의 읽기수준에 한정하는 것은 책 추천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읽기수준을 보다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이해하여 독서자료를 추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는 독서교육에서 '교사'를 개별 학생의 요구, 관심, 상황, 읽기수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자로 고려하고 있으며, 자료추천과정에서는 '교사'의 독서교육 및 독서자료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만화책에 대한 경계, 고전에 대한 지나친 강조,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과 학습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재미를 추구하는 책에 대한 경계, 아동용 독서자료에 대한 범위의 제한 등의 경향이 있을 때는 교사와 사서교사 간에 긴장관계가 생겨 사서교사가 독서교육과 관련한 교사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독서자료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로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과 관련한 교육 및 안내 등이 요구되며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독서자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사서교사들은 '교수학습과정 지원'과 '여가독서에 기반한 독자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서교사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사서교사는 '교수학습과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일부 사서교사는 교과와는 별개로 '여가독서에 중점을 두고 독자가 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또 다른 일부 사서교사는 '이 두 입장을 조율'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사서교사는 독서자료 추천에서 독자인 학생의 독서자료 선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도서선택 행위를 고찰한 정진수(2011)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재미있는' 책과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서교사는 초등학생들이 취하는 이러한 행태적 특성을 주요하게 고려해서 책 추천의 성공률과 만족도를 높여내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arter(2000)는 책 추천을 위한 사서교사의 상담이 아동을 위한 '재미있고', '유쾌한' 책을 선택하는 예술과 같은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아동이 이전에 좋아했던 것'과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독서자료 추천 시 '수업 및 교과과정'에 대한 고려는 개별 학생의 상황, 흥미, 읽기수준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교과를 개별 학생의 상황과 연계하여 추천하는 것이 하나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평소 학생이 관심과 흥미가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흥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학생이 현재 배우는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자료를 추천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사서교사의 아동자료 읽기와 아동자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사서교사가 수많은 자료를 혼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사서교사의 아동자료에 대한 이해와 장악을 위해 아동문학과 아동자료에 대한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공동 연구와 학습을 하는 등의 집단적이며 구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도서 에 대한 이해와 장악 못지않게 아동들이 무엇을 읽고 싶어 하는지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 아동과 인터뷰하는 기술도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아동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는데 특히 신참 사서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지적하였다. 따라서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아동과의 상호작용 및 인터뷰와 관련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 양성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독자상담 인터뷰'라 부르고 있다. 이는 독자와 책을 연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고객과 사서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사서가 독서요구를 비롯한 독자의 취향과 관심을 대화를 통해 알아내어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담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담을 수행하는 기술과 방법을 훈련하는 교육을 사서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이다(이연옥, 2010; Kuhlthau, 2004; Smith, 2001).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의 독서자료 추천 경험에 의거해 볼 때 국내 사서교사 양성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교육내용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이 개별적 경험수준의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 양상과 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독서자료 추천과정에서 사서교사가 직면하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독서자료 추천과정의 세부 단계와 추천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향후 사서교사의 추천활동 수행에 있어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다각화와 개별 독자를 위한 추천활동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책을 읽지 않고, 책읽기를 싫어하는 비독자를 대상으로 독서를 자극하는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독자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긍정적인 독서경험이 열성적인 독자로 만들기에'(Trelease, 2001) 개별 독자에 대한 독서자료 지원과 관련한 사서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서교사의 역할 수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권은경 (2012).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방향 -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49-269.
<http://dx.doi.org/10.16981/kliss.43.4.201212.249>
- 노성호, 구정화, 김상원 (2020).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사.
- 박양하 (2016). 학교도서관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도서추천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279-303. <http://dx.doi.org/10.16981/kliss.47.1.201603.279>
- 안세근, 김현욱 (2019). 영국 공교육에서의 학력수준별 교육에 대한 고찰. 비교교육연구, 29(6), 1-26. <http://dx.doi.org/10.20306/kces.2019.29.6.1>
- 이연옥 (2006).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47-72.
- 이연옥 (2010). 독자상담을 위한 사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73-98.
<http://dx.doi.org/10.16981/kliss.41.4.201012.73>
- 정진수 (2011). 어린이독자의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417-437.
-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2007).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 Booth, H. (2007). Serving Teens Through Readers' Adviso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Bracy, P. B. (1996). The Nature of the Readers' Advisory Transaction in Children's and Young Adult Reading. Guiding the Reader to the Next Book. Kenneth Shearer ed.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 Carter, B. (2000). Formula for failure: reading levels and readability formulas do not create lifelong readers. School Library Journal, 46(7), 34-37.
- Chelton, M. (2003). Readers' advisory 101. Library Journal, 128(18), 38-39.
- Doll, C. A. (2001). Advisory Servic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 Kenneth Shearer & Robert Burgin ed. Libraries Unlimited.
- Heritage, J. (2004). For the Love of Reading: The Readers' Advisory Interview in the Elementary School Library Media Center.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United States.
- Kragler, S. & Nolley, C. (1996). Student choices: book selection strategies of fourth graders. Reading Horizons, 36(4), 355-365.
- Krashen, S. (2002). The lexile framework: the controversy continues. California School

- Library Journal, 25, 29-31.
- Kuhlthau, C. (2004).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2nd ed. Libraries Unlimited.
- May, A., Olesh, E., Anne, M., & Lackner, C. P. (2000). A look at reader's advisory services. Library Journal, 125(15), 40-44.
- McCook, K. P. & Rolstead, G. (1993). Develop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Concepts and Commitments. New York, London: Neal Schuman Pub.
- Patton, M. Q. (2015).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LA: SAGE Publications.
- Ross, C. S. & Dewdney, P. (1989). Communication Professionally: A How-To-Do-It Manual for Library Applications. New York: Neal- Schuman Publishers.
- Ross, C. S. (1991). Developing readers' advisory service: new directions. RQ, 30(4), 503-518.
- Saricks, J. G. (2005).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eacher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hearer, K. D. & Bracy, P. B. (1994). Readers' advisory services: a response to the call for more research. RQ, 33(4), 456-459.
- Smith, D. (2001). Reinventing readers' advisory, In Shearer, K. & Burgin, R. ed. The Readers' Advisor's Companion. Libraries Unlimited, 59-76.
- Trelease, J. (2001). The Read-Aloud Handbook. New York: Penguin.
- Vacca, J. L. & Vacca, R. T. (2003).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Boston: Allyn and Bacon.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Sekeun & Kim, Hyunwook (2019). A study on streaming education in UK publ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9(6), 1-26.
<http://dx.doi.org/10.20306/kces.2019.29.6.1>
- Chung, Jin Soo (2011). A study on children's book selec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417-437.

- Kwon, Eun Kyung (2012). Reading education at school libraries: new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heir reading achievem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49-269.
<http://dx.doi.org/10.16981/kliss.43.4.201212.249>
- Lee, Yeon Ok (2006).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selection tools for children's and young adults' boo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47-72.
- Lee, Yeon Ok (2010).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73-98.
<http://dx.doi.org/10.16981/kliss.41.4.201012.73>
- No, Sungho, Gu, Jungha, & Kim, Sangwon (2020).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Seoul: Parkyoungsa.
- Park, Yang Ha (2016). A study on the book recommendation standards of book-curation service for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279-303. <http://dx.doi.org/10.16981/kliss.47.1.201603.279>